

The Business of Idolatry (우상숭배의 사업)

사도행전 19:21-41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럴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훼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찌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가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스와 솔직히 주식시장을 지배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제 세대에게는 특히 《터미네이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즉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ChatGPT, Gemini, Perplexity 또는 수많은 AI 플랫폼들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AI는 자율주행 택시에서부터 공장 업무, 수술을 수행하는 로봇, 치과 임플란트를 심는 로봇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했습니다. 몇 년 전 플래그스태프의 한 치과의사는 로봇이 자신의 입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멈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AI는 스스로 사고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사회와 인류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편에서는 AI가 사회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며 삶을 무한히 더 좋게 만들어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극단적인 견해에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내 직업과 생계를 건드리지 않는 한 좋은 것입니다.

제가 AI가 치과 시술을 수행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은 치과 치료의 모든 부분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치아를 깎는 일부터 흡입하는 일, 보철 크라운 제작, 청구 업무까지 말입니다. 치과는 전적으로 로봇에 의해 운영될 것이고, 그들은 인간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과의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바로 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PA 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수행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수입과 급여를 잠식할 때 AI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AI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에 침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토마스 목사가 하나님을 AI와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우리의 밑바탕을 흔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의 총들을 하나씩 벗겨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단 한 가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우상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25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부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에베소에 살던 그리스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핵심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손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 데메드리오는 많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깊이 관여했는데, 그중 특별한 것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까? 최근 뉴스를 보셨다면 달 탐사선 이름이 ‘아르테미스 II’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이며 아폴로의 자매입니다. 아폴로는 1960~70년대 달 탐사 프로그램의 이름이었습니다. 달은 기후, 조수 간만의 차, 생체 리듬 등 지구 생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인들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과 조각상을 만들고 그녀의 은총을 구하며 숭배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아르테미스를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믿지 않게 되면 그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학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아르테미스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르테미스에도 관심이 없었고 바울의 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계와 수입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밑바탕을 흔드시고 당신의 삶 속에 믿음의 위기를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1월에 시작할 제자훈련 「하나님을 경험함(Experiencing God)」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 믿음의 위기는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황금기에는 세계 여행을 계획하며, 샴페인을 마시고 해변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은 허상이었고, 이제 나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은 진짜 현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빼고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밑바탕입니다.: 내 월급, 내 자녀, 내 집. 그리고 어떤 형제는 한 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컨트리클럽 회원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깊이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신분과 위치, 그리고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을 잃고, 존재 가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마태복음 19: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으니 이는 재물이 많음이라.”

데메드리오와 부자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도, 부자 청년도, 그리고 우리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늘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데메드리오의 경우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복음 좋습니다. 계속 전하십시오. 하지만 내 도시로 와서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믿고,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부자 청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하라고요? 제 고급 승용차를 팔고 중고 혼다를 타라고요? 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서 빼서 공립학교에 보내라고요? 더 이상 컨트리클럽 회원권도 안 된다고요? 주님, 바로 거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보다 집을 앞세우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살 집, 좋은 직장 덕분에 누리는 좋은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만약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면 죄가 됩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영적으로 이상들과 결별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자신을 맞추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책임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상승배의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는 참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가담했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는 종종 군중심리(Mob Mentality)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 원수는 종종 군중심리(Mob Mentality)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28-29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혼란에 빠져 일제히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갔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언제나 ‘아니오’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폭도를 선동하는 현장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992년 LA 폭동—저는 열여섯 살의 청소년으로 그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폭동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네 명의 LAPD 경찰관들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시는 이틀 동안 폭동에 휩싸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핵심 공동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한인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드니 킹이 구타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기조차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면 모두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다.”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당시 한국에 있던 제

친척들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또 아무리 그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시민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시작되자 폭도들은 주로 한인 상점 주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당시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동은 경찰관들에 대한 평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폭동은 한인 상점 주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폭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평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아닙니다. 텔레비전, 식료품, 온갖 상품을 한 아름 들고 상점에서 걸어 나오는 약탈자들입니다. 기자들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들 중 절반은 로드니 킹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평결에 대한 항의가 폭력 직전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결이 내려진 법원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심리의 본질은 모든 논리와 이성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 군중의 영혼을 장악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왜 그 파도가 처음 시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이런 군중심리를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21-22

“총독이 다시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대제사장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께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원수는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이 군중심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구주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있었던 바로 그 군중심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군중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이 군중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묘사합니다.:분노한(enraged), 혼란스러운(confused), 외치는(crying out)

그들은 자신들이 왜 화가 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32 “대부분은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 군중심리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당신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군중과 싸우면서 논리와

이성을 들이대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는 세상의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들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무기들의 목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갑주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에베소서 6장의 영적 무기들

에베소서 6:14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여러분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은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16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은 신실합니까?

에베소서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요기도회에 참석해 온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무기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과도 다른 전쟁입니다. 저는 BVC가 이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의 무기로 짓밟으려는 군중과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를 휘두르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전쟁에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업(Business)’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주일예배를 빠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콘서트에 가기 위해 금요기도회를 빠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성경공부 또는 다른 교회 활동을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계가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처럼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주님의 날에는 문을 닫는 치크필레(Chick-fil-A)의 운영 원칙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치크필레는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맥도날드보다 매장당 수익이 두 배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으로 영적인 전환을 할 때, 그 사업은 단순한 존재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상태, 곧 영적 전쟁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전쟁을 인내하며 싸우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삶 속의 우상들이 파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앞으로 다가올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들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 19:34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게 되자 그들은 약 두 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외쳤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런데 이 군중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이오, 아리스다고, 그리고 알렉산더를 극장 중앙으로 끌고 가서 데메드리오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변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혔고, 대신 이 세 사람이 군중 앞에서 선교 사역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소위 지도자는 뒤로 물러나고, 그의 동역자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원수 앞에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려고 하자 군중은 그의 말을 물어버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무려 두 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요즘 인터넷에서 보는 분노 영상들처럼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세 사람은 바울이 말한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의, 평안, 구원의 확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인내

그들은 혼란스럽고 잘못 인도된 군중의 외침을 두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두 시간 동안 그런 광기 어린 소리를 참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서기관(시 서기)이 나서서 선언합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아데미를 대적하여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 무리가 불만이 있다면 법정에서 가져가거나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군중은 해산되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알렉산더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었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고, 군중심리는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여러 번 말해 왔지만, 특히 최근 설교들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많은 이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BVC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들고 굳게 선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에 남았지만,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오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군중 속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인내는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입니다. 우상숭배의 사업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망문, 곧 물질적 부와 돈에 대한 추구라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소요를 일으키고, 생계를 지키기 위해 목청껏 외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폭도들 앞에서 있는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데미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분노한 군중 앞에서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무기를 붙들고 영적 전쟁을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나라의 무기를 들고 영적으로 인내하며 싸우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아니라, 바로 그 우상(**THE idol**), 우리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영적 무기들로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